

---

잠든 숲에 사랑을 묻다

곡성문화원

---



잠든 숲에 사랑을 묻다





## 발간사

어느 때가 지평선 너머를 생각해 본 일이 있습니다. 해가지는 지평선, 달이 뜨는 지평선, 저 멀리 보이는 지평선은 인간이 가는 길에 대한 아름다운 표증일는지 모릅니다.

수년간 문화사업에 종사하는 길을 걸어오며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라는 명언을 늘상 가슴 깊이 새기며 생활해 왔습니다. 짧은 생애를 살면서도 값진 유산을 남겨준 조상님들의 유지를 받들어 내 고장의 문화유산을 발굴하고 보존하며, 자라나는 후손들에게 그 맥을 이어주는 것이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해 왔고 지금까지 그 일들을 해왔습니다.

지난한 삶 속에서도 따스한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는 윤석주 시인의 시집 발간에 조그만 도움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아울러 축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1998년 늦가을

곡성문화원장 金吉榮

# 차 례

## 발간사

### 제 1 부

저무는 봄날 .....	15
살구꽃은 지는데 .....	16
碑文 .....	17
봄날에 쓰는 편지 .....	18
落花에 마음 실어 .....	20
大暑 .....	22
사랑 .....	23
그리움이 삭아서 .....	24
땅끝에서 .....	25
아무리 작은 흔적도 각인된다 .....	26
그 겨울, 채석강에서 .....	28
絶唱 .....	30
山寺에서 띄우는 편지 .....	31
아프지 않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	32
마음속 길 하나 지우며 .....	33
잠든 숲에 사랑을 묻다 .....	34

바람은 떠나온 곳을 생각하지 않는다 .....	36
사랑 하나 키우고 싶다 .....	37

## 제 2 부

겨울 山寺 .....	41
비탈길에서 서성이다 .....	42
소금 .....	43
사람살이 .....	44
白髮 .....	46
生の 肖像 .....	47
죽비 .....	48
손 .....	49
부처의 고향 .....	50
따뜻한 불빛 .....	51
어머니의 肖像 .....	52
閨팔월 .....	54
산은 말이 없다 .....	56
겨울비 .....	58
煉炭을 닦고 있는 여자 .....	60

되새때 .....	61
넥타이族의 패손메이커 .....	62

### 제 3 부

옛 이야기 .....	65
그래도 풀꽃은 핀다 .....	66
吉日 .....	68
봉숭아 .....	70
鄉里 .....	71
봄가뭄 .....	72
여름 한낮 .....	73
芒種 무렵·1 .....	74
芒種 무렵·2 .....	75
별초 가는 길 .....	76
同寢 .....	78
오래된 하늘 .....	80
木寺洞 가는 길 .....	81
내 자리 .....	82
老松 .....	84

겨울 潛行 .....	86
-------------	----

#### 제 4 부

清明 .....	91
꽃沙汰 .....	92
망치질 소리 .....	93
지금은 사랑해야 할 때입니다 .....	94
봄불 .....	96
봄, 짙은 안개 .....	97
나무들의 사랑법 .....	98
뿌리 .....	100
내 언어는 詩가 되지 못하고 .....	101
忘憂草 .....	102
八月 .....	103
七月의 江가 .....	104
돌탑 .....	106
구절초 .....	107
交感 .....	108
사연 .....	109

광주湖에서 .....	110
사람들이 토끼장에서 산다 .....	111
氷山 .....	112
<b>발문</b> .....	신덕룡 · 114
<b>後記</b> .....	126

## 제 1부

### 아무리 작은 흔적도 각인된다

저무는 봄날  
살구꽃은 지는데  
碑文  
봄날에 쓰는 편지  
落花에 마음 실어  
大물  
사랑  
그리움이 삭아서  
땅끝에서  
아무리 작은 흔적도 각인된다  
그 겨울, 채석강에서  
絶唱  
山寺에서 띄우는 편지  
아프지 않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마음속 길 하나 지우며  
잠든 숲에 사랑을 묻다  
바람은 떠난 곳을 생각하지 않는다  
사랑 하나 키우고 싶다





## 저무는 봄날

마른 가지마다 다투어 꽃들 매달고  
메마른 바람도 꿈길 가듯 한다  
서천으로 떨어지는 해  
잡을 길 없어 어느새 담 너머  
살구꽃 다아 이운다  
그대여, 우리가 참으로 사랑하긴 했었는데  
꽃불이나 어둠까지 보듬긴 다 보듬어 보았는데  
그런데도 못 주었던 마음이 남아서  
지는 꽃잎이 저리 목 늘린 산 쪽으로만 날리는가  
그대여, 지금 내가 못 견뎌 하는 건  
무심히 흘러버린 세월이 아니라  
자꾸 떨어져 나가고  
결국 혼자 남음이라.

## 살구꽃은 지는데

허공을 가득 메우며 살구꽃 지고 있습니다.

한때는 우리도 저 살구나무처럼 든실하게 뿌리 내려 마른 가슴에 잔잔한 사랑의 강물 흐르고 살구알같이 여문 꿈 알알이 매달아 살아보자고 다짐한 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절 보릿고개는 하늘 위에 걸쳐있어 병아리 사랑으로 넘기엔 너무도 높았습니다. 부황 든 험한 눈으로 바라보면 살구꽃잎 튀밥으로 펑펑 터져 떨어졌습니다. 깊이를 알 수 없는 늪 같은 봄날, 참으로 아득하여 차라리 눈을 감아버려도 새파랗게 질린 하늘이 빙빙 돌며 우리의 등을 떠밀었습니다. 살구꽃 말없이 이우는 봄날, 바람같이 떠나간 그대를 찾아 나도 바람이 되었습니다.

그 사랑 지우지 못한, 저문 한 생이 그 살구나무에 기대었습니다. 살구꽃잎 가슴속으로 지고 있습니다.

## 碑文

차운 가슴에 불씨 하나 묻었다.

가슴 설레던 새벽열차 뒷모습을  
하냥 지우던 안개, 그 뿌우연 것이 늘  
내 앞을 가로막았다.

모래밭,  
풀씨가 보이지 않아도  
풀이 돋고  
꽃이 피어나듯

불씨 자라 가슴을 태운다  
활활 태운다  
까맣게 탄 그 자리  
문신처럼 새겨진 사랑 하나.

## 봄날에 쓰는 편지

눈시울 붉어지는 그리움 때문에  
바람은 목은 가지를 흔들 것이다  
메마른 가슴으론 사랑을 얘기할 수 없어  
하늘은 재갈재갈 봄비를 또 뿌릴 것이다  
그러면 뭔가 알겠다는 듯이  
잠을 자던 느티나무가  
몸을 몇 번 뒤척이다가 드디어  
새 이파리를 밀어 올릴 것이다  
돌각담 옆 살구꽃 봄밤 환히 밝히면  
아버지 노름빛에 살림 내주고  
가슴애편 얻은 어머니 세상 버리자  
세상은 더이상 내가 살 곳이 아니라고  
머리 깎고 먹물옷 입겠다고 떠난 순이,  
젊은 온 날을 육신육신 앓았던 그녀와의 사랑도  
서른 해가 훨씬 지나 이제는  
서답처럼 하얗게 바래버렸는데  
그림자 자꾸 밝히는 봄날,  
행여 바람 같은 소식 하나 물어올까

창문 너머 준 눈길 아스라한데  
울봄도 진달래는 온 산에다  
환희에 들뜬 연서를 마구 쓸 것이다.

## 落花에 마음 실어

날빛 잔잔한 아침 나절인 것이다  
뒤란 싸리울 옆 갓 피어난 장다리꽃에  
호랑나비 한 쌍 사랑놀음 한창인 것이다

그 옆 만개한 살구꽃은 있는 정 다 주고  
이제 명주실바람에도 꽃이파리 버리는데  
아직도 새 순빛 돌지 않는 내 마음  
그 부드러운 바람 끝에 매달아 볼까

먹물웃 입고 출현한 여인이 아니었던들  
어느 유정한 객이 전해주었으랴  
시위 뒹겨진 세월 속에서도  
아아, 첫사랑 끝내 부리지 못했던 것을

꽃들이야 한 생애 다하고 윤회길 드는데  
쓰라린 마음 굳게 닫고 지금도 일구월심  
합장으로 신열 삭이고 있을 그녀에게  
저 호접(胡蝶)의 사랑은 속세의 그림자일 뿐일까

잊자 잊자, 저 낙화에 마음 실어  
이제 세월 밖으로 떠나보내자는 것이다  
오늘도 시방도 골백 번 다짐하면  
소쩍새 울음에도 피명울 배겠지만  
거기에 無心이 열리긴 열릴 것이란 얘기다.

## 大 暑

칸나꽃 피어난다  
아름답기보다는 위대하다  
땡볕에 꽃심 부여안고 놓지 않는  
저, 끈끈한 사랑.

나는 길가에 앉아  
꽃잎같이 떠나버린  
그대를 생각한다.

뜨건 피 돌아  
온몸 후줄근히 젖는다.



## 사 랑

창백한 햇살 너머로 파란 하늘이 깊다. 그 헤아릴 길 없는  
웅덩이에 빠진 은행나무가 윤기 잃은 손을 흔든다. 벼가 누렁  
게 익은 방천길에 구절초 몇 송이 눈물처럼 뿌려놓고 발걸음  
재촉하는 계절, 그 떠남이 몹시 안타까웠나보다. 사무치게 절  
실해도 붙잡지 않고 보내주는 통곡보다 진한 마음 한자락을  
본다.

## 그리움이 삭아서

그대 보고픔에  
봄밤 하얗게 밝히다 보면  
눈 먼 그리움이 쇠어서  
산막 봉창에 허깨비도 얼비친다  
달빛 기울어지면  
기다리다 지친 별들이  
마당 가득 내려와서  
지친 마음에 활활 불을 놓는다.  
그리워, 삭을 대로 삭은 가슴  
망웃자리처럼 푹푹 썩다 보면  
알리라  
얼마나 가슴 썩어야  
그리움의 흰 절정과도 같은  
사랑이 되는가를……

## 땅끝에서

끝이다. 이제 더는 갈 길이 없다  
온 길 되짚어 가기 전에는……  
한두 줄의 글로 요약될 수 없는 사랑,  
그 미로의 저잣거리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그림자가 된 그대를 떨쳐버리고  
진정 혼자이고 싶었다.

해 떨어지는 땅끝 벼랑에 서서  
따라온 그림자를 바다에 던진다 그러자  
심술처럼, 파도는 그림자를 이끌어  
바위에 가슴을 치고 흩어지는데, 바다는  
그 흔적을 다시 모아 또 하나의  
지울 수 없는 幻影을 만든다.

절벽에 선 상수리나무 몇 그루  
열매도 잎새도 가진 것 다 버리고  
해풍에 몸 말리는데 아직도  
잎새 떨구지 못한 나무 한 그루  
깊어지지 못해 속울음 울고 있다.

## 아무리 작은 흔적도 각인된다

왜 먹물옷 입었느냐고 차마 물을 수 없었지.  
비구니만 산다는 남해 금산 보리암 오르는 길  
갯바람은 목이 쉰 유성기 소리로  
이제 막 잎 피우기 시작한 보리수 가지를 흔든다.  
아닌 날 소나기 같은 그녀의 출현에  
그냥 막막해 잎새 떨군 나무로 서서  
말없이 바라보기만 했던 것이 지난 가을이었던가.  
사람살이 사연이야 어디 한두 가지일까 보냐만  
발 아래 남해바다 반짝이는 물살 조각들을  
이승에 미만한 슬픔의 알갱이들의 총량이라고 한  
어느 시인의 눈물을 난 알고 있는 것이다.  
그래도 그녀 왠지 기다릴 것만 같은 생각에 끌려  
마음에 짐을 지고 암자에 오르는 길이 이다지 아득한가.  
젊은 온 날을 가슴 속에서 살았던 여인  
우리 우연히 만났다 헤어진 것이 필연이라면  
나는 무슨 헛수고에 마음을 기댄 철부지 욕심이런가.  
바람은 자꾸 불어와 노송밭을 지나고  
그 바람에 온몸으로 울음소리를 내는 솔잎들

상처 없는 인간은 하나도 없다고  
우리 삶 자체가 작은 상처들의 총체라고 말하지만  
상처는 잊어질 뿐 지워지진 않는 것이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이 산을 오르지는 못할 일.  
이제 더 이상 이 산을 오르지는 못할 일.  
우리는, 이루어질 수 없었던 사랑의 그 사연을  
또 바람결에 물어야 할 때가 있는 것이다.  
그러면 저 아득한 영혼의 암자 쪽으로  
무어라도 전할 듯 새도 한 마리 나는 것이다.

## 그 겨울, 채석강에서

눈 내리는 날에  
낙조는 어떻게 몸 사르다  
겨울바다로 뛰어드는지 바다는  
그 사랑을 또 어떻게 품어 안는지  
좁쌀눈 흘뿌리는 채석강에 섰다

毒酒를 마신 듯 빨발은  
혹한에도 가슴을 드러내놓고 잠시 쉬는데  
바다는 너무도 장엄한 사랑의 임종 앞에  
부대끼며 부서지며 안간힘을 쓰면서  
눈발 속에서도 뜨거워지고 있었다

난 차라리 눈을 감아버렸다, 내가  
서 있던 바위가 바닷속으로 빨려들고  
내 아랫도리가 바닷물에 잠기고 이윽고  
가슴이, 머리까지 물에 잠기고서야 내가  
가슴더운 허수아비인 것을 알았다

그래, 더운 마음 털어버리고 다시 서니  
만경들 빈 들판에 아직 잠들지 못한 갈꽃들  
울음소리 들리고 해안절벽 가까스로 부여잡은  
뿌리가 드러난 해송 두 그루 가지를 흔들어  
서로 쌓인 눈 털어주는 것도 보이느니.

## 絶唱

꿈어질 듯 이어지고  
찾아들다 팔팔 솟구치는  
막힌 숨통 확 뚫리는,  
중모리에서 휘모리로 몰아가는  
신명 다한 저 소리

鳴玉軒 몸뚱이 늙은 배롱나무  
홍역 할 때 온몸에 열꽃 일듯  
상사의 꽃불 놓아 활활 타는  
독기 품은 저 사랑을, 누가  
사랑가로 달래주는가

마음 버린  
장좌불와 십여 년에  
득음에 이른 殘蟬  
삿됨 없는 가락을 뽑고 있다.



## 山寺에서 띄우는 편지

木魚가 운다.

천 년을 울었다는  
그 울음소리

예나 지금이나  
한결같다

朝夕變하는 오늘,  
여기 와서  
如如의 세계를 본다.

## 아프지 않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저녁 종소리 어둠을 깨우는 사하촌  
하나 둘 눈뜨기 시작한 등불은  
사랑을 알아 화염에 든 목어의 눈빛,  
일주문 옆 좌우 석등으로 섰던  
우리의 전생을 스치던 바람, 아직도  
오지랴를 파고드는데  
나는 술에 취해 부도에 기대인 채  
오지 않을 그대를 기다린다  
그대를 사랑하기 위하여  
나를 상처내는 일은 가슴속에  
전설 하나를 만드는 일이다.

## 마음속 길 하나 지우며

산을 오른다. 능선으로 난 평탄한 길을 버리고 가시덤불 잡목 우거진 비탈을 택해서, 마른 풀숲 사이사이 훈김이 돌고 다시 새순이 돋는다. 밑둥이 늙은 산철쭉은 울봄도 젊은 날 그리움을 지우지 못했는지 온몸을 활활 태운다. 마음으로 짐을 졌어도 발걸음 무거운 오늘, 사랑으로 진창이 된 마음의 길을 지우며 새 길을 찾아가지만 여전히 내 생의 낮선 비레만 보일 뿐이다. 그대가 바람처럼 가슴을 훑고 지나간 지금은, 가녀린 풀잎 하나 흔들리게 할 수 없어 내가 가는 이 길이 미움이나 원망이 아님을 그대는 알까. 길을 지워 마음을 비우고, 비워진 만큼 깊어져서 세월이 흐르는 더 깊은 물소리를 들을 수 있었으면.

## 잠든 숲에 사랑을 묻다

산마을 뒷동산  
노을 걸린 느티나무 숲  
그 빈 가지에 어둠처럼 펄럭이며  
착 달라붙은 갈가마귀떼  
오늘 밤 잠자리 찾아들었는가

선달 고추알 추위에  
생솔가지 매운 연기 눈물 글썽이며  
군불 지피는 뜻은  
아직도 집 찾아 들 줄 모르는  
그대 기다리는 마음.

마음의 문 하나  
열고 닫는데  
生死가 뒤바뀌는  
그 많은 에너지가 소모된다면  
누가, 사랑 같은 거 하거나 할까?

갈가마귀떼 찾아든 겨울숲,  
그래도 잠들지 못하고  
뒤척이는 소리 들린다.

## 바람은 떠나온 곳을 생각하지 않는다

사랑이 머물다 간 자리엔 생각만  
남는다 별빛 찬란한 밤을 버리면서  
쌓았던 사랑의 성벽  
잔비에도 모래성처럼 허물어질 때  
허허의 무게로 짓누르던 상처,  
그 흔적들이 바람이 되어  
어디론가 떠나길 바란다  
바람은 떠나 온 길을 되돌아  
가지 않기 때문이리라  
바람이 가는 길은 평생  
한 번뿐이어서 떠나온 곳에  
마음을 남기지 않는다.

바람은 절대,  
가슴 더운 사랑 같은 거 하지 않는다.

## 사랑 하나 키우고 싶다

새로워지고 싶다, 여름밤  
하늘을 긋는 유성처럼 흐르고  
흘러서 세월의 때 씻고 나면  
내소사 대응전  
색 바랜 문살무늬처럼  
그렇게 담담하고 그렇게 무욕스런  
마음 하나로 서고 싶다 다만  
갈증에 마시는 막걸리 첫 모금 같은  
그런 사랑 하나,  
가슴 속 깊숙이 키우고 싶다  
먼 들판 끝으로 찾아들고 싶다.





## 제 2부

### 生の肖像

겨울 山寺  
비탈길에서 서성이다  
소금  
사람살이  
白髮  
生の肖像  
죽비  
손  
부처의 고향  
따뜻한 불빛  
어머니의 肖像  
閏팔월  
산은 말이 없다  
겨울비  
煉炭을 닦고 있는 여자  
되새끼  
넥타이族의 패손메이커



## 겨울 山寺

눈 덮인 산사의 아침  
산새 한 마리 날지 않는다  
지난 밤  
풍경을 괴롭히던 바람도  
부처님 자비 속에 깃들었나보다

고즈넉한 아침 나절  
어린 상좌승 염불소리  
목감기 같은 그리움으로  
곶전을 파고 드는데

속세에 두고 온 인연 하나 끊지 못함은  
세월 사이에 낀 나이 때문일까  
불혹 넘도록 철들지 못해  
윤기 없는 삶 살아온 회한일까

생의 곁가지 하나 자르지 못한  
내 마음 낮달처럼 외롭다.

## 비탈길에서 서성이다

해종일 바람부는 길 위에다  
뿌리없는 그림자를 놓쳤다  
바람은 삶의 이력을 한 장 한 장  
넘기는데 길은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서 끝이 나는지

이정표 없는 생의 거리  
불안한 눈알을 두리번거리며  
하루에도 몇 번씩  
방향 감각을 찾으려 하지만, 이미  
더듬이는 마비되어 버렸다

그들이 그토록  
지악스럽게 꿈꾸는 딴 세상,  
그곳으로 가기 위해  
벼룻길 마다 않지만  
제 머리 위에 파란 하늘이 있고  
별들이 빛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 소금

저것은 순백의 숭리들!

한뎀 젊은 과도로 오대양을 떠돌았거니  
욕망을 끼룩거리는 갈매기들 거느리고  
때로는 열정으로 못 섬들 두드리며  
노래하고 악도 쓰며 몇만 년을 출렁거렸거니

이제 나이 들어, 고향집 앞  
노모 가슴 같은 빨발에 찾아와서  
모래톱 하얀 포말로 그렇게 누운 뜻은  
흐름의 덧없음을 깨달음인가

햇별에 말리고  
바람에 날리고  
마지막 한 방울도  
허공에 다 흘리고

오롯이 태어나는 순백의 저 숭리들.

## 사람살이

산은 그냥 앉아서도 철따라  
꽃도 피워 올리고  
옷도 갈아 입히고  
그 많은 나무들 잘도 키운다

농사일에 해탈이란 없었다 씻나락 담긴  
오지그릇에 살구꽃잎으로 뜬 한평생  
첫닭 울음에 녹슨 양철 대문 밀치고 나가  
달빛 가득 지고 처마 밑에 들면서  
심고 가꾸는 일에 빠가 여물었지만  
돌아보니 저 앞산만 못했구나

강물은 출렁거림 하나만으로도  
참봉어 피라미떼 그 많은 어족들  
언 하늘 끝 외기리기까지 불러모아  
갈숲으로 넉넉하게 다독거린다

봄하늘 그리움도 깊어, 먼 날 기약하며 왔던

그에 숨털 보송보송한 새색시와 더불어  
찰거머리 우글대는 무논세월 잘도 견뎠다  
주둥이 노란 새끼들 날개짓 가르쳐 대처로  
날려 보내고, 이제 늙은 비둘기 되어 구구대지만  
돌아보니 저 강물만 못했구나.

깨우치지 못한 마음에  
무엇을 버리고  
또 무엇을 가져야  
저 산  
저 강물 같은  
화엄에 들 수 있을까.

## 白髮

北邙山 가는 길이  
저 철길이 아닐진대  
길 없는 곳 찾아간다는 것이  
어디 그렇게 쉬운 일인가.

望海寺 뒷편  
동서로 나란히 선 浮屠,  
그 浮屠를 지켜보고 서 있는  
늙은 목백일홍 세 그루

물소리 찾아들 듯  
세월 속으로 조용히.



## 生の 肖像

말바우 시장 앞을 지난다. 노루 꼬리만한 겨울 해 떨어져 무더졌던 바람 다시 날을 세운다. 은행나무 가로수는 부산한 주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버릴 것 다 버리고 冬安居에 들었는데, 세월 뛰어넘지 못한 연줄같이 질긴 목숨 하나, 비니루 포대 위에 홍시 몇 개 꼬들빼기 서너 단 놓고 오들오들 떨고 있다. 추위 말문이 트이지 않는지 종종걸음치는 사람들 물끄러미 바라본다. 곡성 섬진강변 어름 어디 혹은 담양 병풍산 아래 고재종 시인 옆 동리쫓에서 왔을까. 험한 세월 품어안은 모습이 차라리 너무 낮이 익은 저 노파는. 눈알 빙빙 돌리는 현란한 광고 불빛, 도깨비떼처럼 달려드는 자동차 행렬, 삶의 아귀다툼 한복판에서 본다.

## 죽 비

寺下村 돌아  
외진 산길 걷는다  
가슴팍이 시려와 연신  
오지랴를 여며보지만  
마음의 먼 길자리 한기마저  
다 가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 사이로  
떡갈나무가 잎새 하나 떨귀  
어깨를 투옥 친다  
허상에 한눈 판 생애  
일깨우는 죽비마냥.

## 손

빛나는 손이 있었다  
죽을 때까지 일만 했던

평생  
그 흔한 가락지 한 번  
낀 적 없는 손이었다

이승 떠난 지 삼 년  
이장할 때 본  
할머니 手骨

반짝반짝 닳아 있었다  
저승에서도 일만 하시는지.

## 부처의 고향

山 같은 세월  
머리에 이고  
합장으로  
살아온 한평생  
어머니  
그 마음 속엔  
얼마나 많은 부처들이  
터를 잡아  
절을 세우고 있을까.

## 따뜻한 불빛

건들바람에  
백발머리 날리던 억새꽃마저  
머루빛 어둠 속에 묻히면  
산골 마을 끄트머리 작은 집  
노오란 불빛 한 점이  
박꽃처럼 환했다. 그곳에는  
자식들 생각에  
아슴아슴한 눈가 비벼가며  
마디 굵은 손으로  
익은 가을을 다듬는  
어머니가 있다.

하마 오늘 밤엔, 그것들  
보따리 보따리 싸매고 있으리.

## 어머니의 肖像

밤소나기 한둘금 싸리울 오르다 지친  
호박잎 두들기고 나면  
시들한 별들이 또룩또룩 눈을 떠  
마당 가득 남실거리는 고향집엔 지금도  
길쌈하시는 어머니가 계십니다  
노랑 저고리 고운 때 묻기도 전에  
남편 군화 신겨 전장으로 보내고  
선영에 물 떠 놀 유복자 오지랴에 품어  
갈끄막 같은 세월 헤쳐 온 것은  
맹기 풀고 비녀 꽃은 벌일까요 어머니,  
당신의 한평생은 전짓다리에 걸었던  
물 먹은 삼(麻)의 무게와  
시린 무릎에 피멍울 배이도록 비벼 삼았던  
그 삼의 길이만큼 넉넉하지 못했고  
당신이 기다리는 이는  
여태껏 사립 흔드는 기척도 없어  
마른 가슴에 차마 불씨로 재웠습니다  
삼검불 같았던 지난날은

치마말기에 꼭꼭 싸매 둔 채, 아직도  
기다림이 끝나지 않은 당신의 수심만큼  
잔별들 춤춘 이 밤, 당신은  
그에 바디질을 하십니다 그려.

## 閏팔월

무더위 소슬바람에 떨어지고  
여름 내내 득음의 길에 들었던  
잔신(殘蟬) 몇 마리 마지막 쇠된 가락을  
토해내는 閏팔월

고희 넘기신 어머니 홀로  
대청에 정갈히 앉아 바느질이시네  
아슴아슴한 눈가 비벼가며 연신  
흘러내리는 돋보기 고쳐 쓰며

대문 옆 늙은 배롱나무 아직도  
진홍빛 꽃잎 피워 올리는데  
어머니 골 깊은 얼굴엔 저승꽃만 피어  
황천길 준비하는 저 마음이어!

뭔가 아쉬워서 한 달 더 있는 閏달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중얼거리는 보살의 마음 되어



이 세상 소풍 끝나고 歸天하는\* 날 입을  
수의를 지으시네.

\* 천상병 시인의 시

## 산은 말이 없다

아버지는 말이 없었다 형제 같던  
영대집이 이사가던 날도 아버지는  
고물 경운기 달달거리며 개간밭으로  
나가셨다 대꼬쟁이 성질 영대아버지  
하우스 딸기 농사 폐농하고 자식농사가  
진짜 농사라고 광주 문흥동 아파트  
공사장에 막일자리 얻어 떠났다.  
뭘 해도 자식 공부하나 못 시키고  
시방보다 더 못살겠냐고 농협 화물차에  
반도 안된 이삿짐 싣고 떠난 날, 운전석에  
나란히 앉은 영대가 나는 부러웠다  
그날 밤, 아버지는 술이 취해 신세 한탄하며  
고래고래 고함을 치며 눈물 보였고, 어머니는  
기우는 달을 보며 한숨만 푹푹 쉬었다.  
이십 명이 채 안된 면소재지 학교길 시오리  
영대가 전학 가고 외톨이가 되어  
오가는 그 길, 들꽃과 눈맞춤도 시들해졌고  
넋가에서 물잠자리 잡는 것도

눈길 혼자 짙는 발자국은 죽기보다 더 싫었다.  
아버지는 정말 농사만 고집할 것인가  
농사는 이제 돈이 되지 않는다고  
아들이 내년엔 중학교 들어가니 전학시켜야  
한다고 어머니가 졸라도 아버지는  
절대 떠나지 않는다고 일축해 버렸다.

## 겨울비

—누님에게

한겨울, 이삼 일 간격으로  
비가 내립니다, 봄은 아직도  
먼 산봉우리 흰 눈 속에 갇혔는데  
오늘은 고조곤히 지글땀니다

머언 남해안  
비린내 확 풍기는 초라한 어촌  
정제문을 열면 푸른 파도가  
강아지처럼 쭈르르 달려들던 곳

남색 치마 아직 물 바래지도 않은  
그 해 겨울, 그날도 오늘처럼  
비가 내렸던가요, 고기잡이 나간  
남편은 봄꽃 다 이울도록 돌아오지 않고

행여, 풍문에 무슨 소식 하나 물어올까  
빨밭에 선 해태목 같은 나날, 시방도

질퍽할 터인데 또 겨울비가 내립니다  
창호문 치는 신음 같은 빗소리에 마음은  
또 얼마를 떠돌아야 하나요.

## 煉炭을 닦고 있는 여자

무엇을 하고 있는가 저 뒷모습  
어둠을 닦아 빛을 얻으려는가  
모피코트를 입고도  
등이 시린 여자

깊어지지 못해 쉬 달아올랐던 날들  
보이는 것마다 얼룩이 되고  
스치는 것마다 회한이 되어  
서성거리는 불혹의 창가

첫정 같은 설레임의 불빛 하나  
이름처럼 새겨두고 싶었는가

닦는 작업 말고는  
모든 것을 놓아 버린 그녀,  
쫓그리고 앉아 몰두하는 모습  
차라리 비정하다.

## 되새띠

그 작은 몸짓으로 하늘 가릴  
참으로 원통한 사랑 하나 있었는가  
선달 해 설핏하면 잠잠하던 가슴애틀피 도져  
바람 부는 화개골 다시 찾는 되모시  
씻어도 빨아도 지울 수 없었던  
평생을 넣어 말려도 바래지 않는  
핏빛 진한 사랑의 얼룩  
가슴팍에 하얗게 문신으로 새긴 되새  
몹쓸 세상, 한가운데서  
시시비비 알지도 못하면서  
시시각각 죽어간 민초들  
눈 쌓인 화개골 산비레에 누워 아직도  
삭은 측루 묻지 못한 원혼들을 위해  
불빛만큼도 서로 그리워하지 않는 시대  
연약한 날개짓으로 구천 먼 길 날아와  
분노같이 타는 선혈빛 노을 가려  
저승길 활짝 열어 달래는가.

## 넥타이族의 패손메이커

새벽 여섯시 아침은 먹는등 마는등 하고  
오늘 무슨 색깔의 옷을 입을까 생각한다  
이사표, 전무표, 상무표, 부장표, 아니면……  
회사 구조조정안이 게시판에 나붙은  
어제 퇴근 무렵, 전무 앞에서 굵실굵실하며  
얼굴색 싹 바뀌 비굴한 웃음 흘리던  
김과장 복도에서 우연히 봤던 순간  
내 머릿속에 세찬 회오리바람 불어오고  
갑자기 흐려진 세상에  
부시시한 아내, 보채는 자식들이 두억시니처럼  
내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늘어진다  
몇 가지 색으로 나를 칠해야  
사방에서 겨누는 총구를 피할 수 있을까  
적뿐인 전쟁은 이미 시작되었는데  
무슨 메이커의 정글복으로 갈아입고  
누구 등 뒤로 숨어야 안전한지  
출근버스에서 화장실에서 꼼꼼히 생각해도  
도통 희망의 색깔은 보이지 않는다.



## 제 3부

### 오래된 하늘

- 옛 이야기  
그래도 풀꽃은 핀다  
吉日  
봉숭아  
鄉里  
봄가뭄  
여름 한낮  
芒種 무렵·1  
芒種 무렵·2  
별초가는 길  
同寢  
오래된 하늘  
木寺洞 가는 길  
내 자리  
木寺洞 가는 길  
老松  
겨울 潛行



## 옛 이야기

칠월 백중 보름달 휘영청 밝은데  
지붕 너설이 폭석 내려 앉은 빈 집  
문설주 뒤틀리고 무너진 바람벽엔  
누렇게 쥐오줌 얼룩진 귀만 붙은  
헌 농사달력 서럽게 필력이다.  
누가, 어떻게 살다가  
무슨 사연으로 이 집 떠났던가  
보지 않았어도  
듣지 않았어도  
알 수 있다는 듯, 죄다 알 수 있어  
미치겠다는 듯이 마당가엔  
수북한 잡초 환장하게 푸르고  
반쯤 허물어진 돌담 밑 망웃자리  
뚝박 한 그루  
그 하얀 꽃이 집 떠난 터주 마음처럼  
오래오래 서성이는데.

## 그래도 풀꽃은 핀다

눈 녹은 계곡의 물소리가 잠들었던 마을을 깨우면  
부지런한 무지렁이들은 보리밭에 엎드렸다  
일한 만큼 넉넉하지 못했지만 누구를 원망하진 않았다  
돌아보면 늘 빈 손으로 맞던 삼월 긴긴 해  
농사일에 지치고 허기져 봄하늘 누우렇게 보이던 날  
담 넘어온 한 양푼의 호박죽에 남실대던 인정, 그것은  
우리를 밀어가던 맑은 바람이었다  
역사를 끌고왔던 욕심없는 힘이었다  
가슴속 면면히 흐르던 常情이 사라진 세기말,  
나누는 것보다 소유하는 것이 삶의 지표가 된 오늘  
고봉밥은 언제나 먹음직스럽다던가  
솟(金)가루가 생기는 일이면 직위나 명예는  
한날 남루에 지나지 않았고 양심은  
언제라도 손바닥처럼 뒤집을 수 있었다  
생명해야 할 法도 물신 앞에선 고무줄 같아서  
진실을 말한 가슴에 진실은 한 번도 돌아오지 않았지만  
그래도 해는 언제나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므로  
힘없는 풀잎들은 삐쩍삐쩍 말라갔다

시대를 밝히던 별들이 하나 둘 쓰러지고  
저문 강에 삼을 씻으며\* 그 별들을 사모했던  
처마 낮아 낮게 엮드리던 풀꽃 같은 마음들은  
백 년 전 고부들녘 죽창 든 선배가 눈에 물려  
이백 년 전 다산을 다시 읽는다.

\* 정희성 시인의 시

## 吉日

강남 간 제비들 돌아온다는  
오늘은 삼월 삼짓날  
장과봉 넘어오는 따순 바람은  
돌머리 셋강에서 물기 머금어  
마을 앞 당산나무에 녹두빛으로 걸렸다  
봄별 두터운 양지쪽  
노인들 막걸리를 마시고  
그래도 젊다고 나선 중노인 몇은  
동네 샘을 청소한다  
아무리 가물어도 마르지 않고  
한여름 농삿일로 등쪽에 난 땀띠도  
등물 몇 번 하고 나면 하얗게 죽고  
소한 대한에도 더운 김 피어 올랐던  
마을 중앙 큰 샘,  
그간 백 호가 넘었던 동네 지붕들은  
이제 절반으로 줄고  
그나마 상수도 놓이고 난 뒤로  
길어다 먹을 일 없지만

올해도 어김없이 샘을 청소한다  
제비들도 다시 돌아온다는  
삼월 삼짇날, 그 길일에.

## 봉숭아

고향집 앞 마당  
배롱나무 고목 옆  
반쯤 허물어진 돌담에 치어  
모진 세월 굽사등으로  
외로움 견뎌 온 그대  
탐내는 가시내들  
그윽한 눈길  
보살펴주는  
따수운 손길 없어도  
노을빛 닮은 모닥꽃불 스스로 피워 놓고,  
피마자 반들반들한 잎사귀에  
내리는 별빛에서도  
여름밤 적막함이 푹푹 떨어져  
쓸쓸함 더해가는데  
개똥불 하나 날지 않는  
시골 밤 홀로 밝히는.



## 鄉里

내가 지금도 너를 만나러 가는 것은  
수백 년 하늘 받치고 서서도 청청한 당산나무며  
버들치 피라미 각시붕어 한가로운 개울가 둠벙이며  
동살 퍼지는 싸리울에 매단 보름달 닮은 호박이며  
시방도 변함없는 네 모습 보고 싶어서다.

내가 꿈속에서도 가끔 너를 만나러 가는 것은  
어둑어둑한 저녁, 쇠죽 끓이는 아궁이 불빛 앞에  
홍안이 된 할머니와 손자의 얘기가 끝이 없는  
마음과 마음을 열면 그대로 하나가 되는  
인절미 같은 정이 그리워서다.

사람 속에 살면서도 자꾸만 사람이 그리워지는 시대,  
호박죽에 담긴 常情은 이제 옛 이야기가 되고 말았지만  
어려운 날들 송사리 헤엄치듯 살다보면  
어디에도 마음 줄 곳 없을 때 난 너를 찾아 간다  
거기 등 다독이며 살아가는 참사람들 만나고 싶어.

## 봄가뭄

선잠 깬 계절

흔들어 깨우는 사랑바람에

푸석푸석한 흙먼지 날려

장다리꽃잎 어지럽히는 한나절

낮술 한 잔 했지요, 취해

어질어질한 마음으로

청청한 하늘 올려다 보면

금방 흐려져

가는(細) 빗방울 들 것 같아

마당 앞 채마밭

땅맛 당긴 푸성귀 시들시들

고개 떨구고 보대끼는 것이

지계목발 이내 못 버린 내 죄가 되어

가슴에 대못으로 박히고

하늘만 쳐다봐야 하는 농심

이리 폭폭하고 답답하여

나물국 끓여 저녁상 준비했던

아내에게도 미안할 뿐

수저 들다 그냥 놓았다.

## 여름 한낮

초라한 지붕들이 내려다 보이는  
뒷산 소사나무 그늘에 앉았다  
생애 매달리던 사람들은 어디로 갔는가?  
고살길엔 땀별만 유리과편처럼 부서진다  
깜깜한 목구멍을 빠져나온 담배연기  
어린 나뭇잎 몇 개를 간지르다가  
지나는 바람의 등에 업혀간다  
마음속으로 똑똑 떨어지던 적막,  
들판을 가로질러 산 안 가득 퍼진다  
막막함 속에 갇힌 것은 나뿐이 아니다  
구름 한 점 띄우지 않은 하늘이나  
무덤가 입 다문 뻘비꽃이나  
논 가운데 외다리로 선 짝없는 왜가리나  
모두 다 공간 속에 뽁뽁 묶여 있다  
타던 해, 마실 왔다 가듯이 발걸음 재촉하면  
속절없이 또 한낮이 기운다.

## 芒種 무렵 · 1

아득하여,

참으로 아득하여 하늘보다 높다는 보릿고개를 어린 누이를  
떼어놓고 넘어왔었습니다 그날 밤따라 머슴새는 밤새도록 소  
를 몰아 쟁기질을 하였고 어머니는 축 처진 누이를 붙들고 새  
벽넛까지 나오지 않는 빈 젓 물리다 가슴 쥐어 뜯다, 결국에  
는 기진하여 입술 파르르 떨며 까무라쳤습니다.

노르스름하던 보리밭을 썩한 눈으로 바라보던

이젠 맥노가 얼굴에 가득 핀 어머니, 들녘에 짙레꽃 무시로  
피는데, 아직도 피우지 못한 짙레꽃 한 송이 가슴 속에 멍울  
져 있습니다.

## 芒種 무렵·2

보리 팬 논둑에서  
소 몰던 머슴새  
배고픈 울음소리

저무는 들녘 가득  
초록빛 익는 냄새

꽃보리 서너 다발 베어 지고  
지친 발걸음으로  
사립을 밀치던 허리 흰 할배.

## 별초 가는 길

맑은 바람 불어와  
하늘 높아진 추석 며칠 앞둔 일요일  
중학생 아들놈 앞세우고  
어렸을 때 세상 버려 기억 희미해도  
엄한 표정만은 생생히 떠오른  
아버님 묘소에 별초를 간다  
철들어 작은아버지 따라 별초 가던  
이 길은,  
봄엔 고사리 취나물 뜯고  
가을엔 송이 싸리버섯 따고  
집채 같은 나뭇짐 지고 다람쥐처럼  
달리던 바로 그 길, 이젠  
우거진 풀숲에 갇혀  
겨우 자취만 남았다  
언제부턴지 동네 아이들 자라면  
자랑처럼 고향을 버리는데  
필시 이 아들놈도 그럴 것인데  
아예 이 길 묵어 자취마저 없어지면

그때, 이 아들놈  
제 할아버지 묘소에 벌초 갈 생각  
버리지나 않을까 몰라.

## 同寢

바람도 더듬거리는 비탈진 능선에  
별초 안된 무덤 하나 쓸쓸하다  
눈을 들면 산모퉁이 돌아오는 새끼줄 같은  
강이 흐르고 그 곁으로 세월을 실어나르는  
전라선, 매듭으로 엮을 수 없는 시간의 밧줄  
두 가닥을 힘겨운 듯 끌고 간다

수북한 잡풀 속 지붕 한 쪽이 허물어진 폐가,  
단절감이 폐부를 찌르는데 그래도 기적이  
날마다 안부를 물어주고 주글이 삶으로  
저 들녘에 발자국만 무수히 찍었던 농투사니  
한숨 짙은 들노래 한가락도  
건들바람 속에 묻어 온다

누구인가, 여기 누운 당신은  
별늪 한 줌 깔고 앉아 달려드는 궁금증을  
털어내지 못하고 문지방에 등을 기댄다  
창호지 같은 햇살이 그와 나를 감싼다



좀처럼 가까워지지 않는다. 좁혀지지 않는  
그와 나의 거리, 이승과 저승, 그 시공을 넘어  
단단한 매듭 같은 緣 하나 맺어보려고  
오늘 밤, 그의 유택에 촛불 하나 밝힌다.

## 오래된 하늘

자랑처럼 고향 떠나던 날이 있었습니다 고개 들면 눈시린 파란 하늘만 빼꼼히 보이던, 일 년 내내 면서기 한 번 찾아오지 않던 마을, 도회지 회사에 취직되어 떠나는 날, 어머니는 눈자위 훔치셨지만, 상전벽해가 된대도 이곳만은 변치 않을 줄 굳게 믿고 있던 어머니에게 나의 떠남은 기쁨이었을 겁니다.

어금니 앙다문 세월 속, 큰 나무 밑 관목의 해바라기 같은 삶에 별 좋은 날도 눈(雪)짐 진 날도 있었습니다 황사바람 온 산을 휩쓸던 때, 연약한 잡목들 부러지고 뿌리째 뽑혀 세상 속으로 태질당하던 날, 처진 어깨에 가방 하나 달랑 매고 죄인처럼 숨어들 듯 텃자리 찾았습니다 나보다 늘 한 마장쯤 앞서가던 세상이 좁장한 고샅길 빠져나가지 못하고 삼(麻) 짚는 물레소리에 멈춰 선 이곳, 싸리울 넘어온 호박죽 양푼에 박힌 붉은 돈부쿠이 보석처럼 보이던 저녁, 하늘은 별들을 불러내어 사람들 머리 위에 매달아 줍니다.

## 木寺洞 가는 길

아름드리 왕버들 들성들성 서 있는  
보성강 깨끗한 물빛 밟아 봄은  
영금영금 황소걸음으로 지나가는데  
물 속의 피라미 붕어떼 몸놀림도 가뿐하구나  
손짓하며 강줄기 따라 같이 흐르다 보면  
허벅지 드러내고 대사리 좁는  
산작약 같은 아낙 서넛,  
익은 봄도 함께 건지고 있다  
잉겔불로 타오르는 참꽃 산모퉁이  
오솔길도 개운쿠나  
십팔 암자(十八=木, 寺)에  
열 여덟 도사 나왔다는 곳  
竹林里 대숲 바람 맑디맑아  
가난한 사람들  
박꽃 같은 정한 웃음  
웃고 사는 木寺洞.

## 내 자리

돈가뭇 들어 설대목 피복 장사는 헛물만 켜고  
날씨 풀린 요즘도 찾는 발길 뜸해  
대인동 옛 터미널 뒤 홍등가 골목  
실내 포장마차에서 막걸리 한 병에  
생두부 한 모 시켜놓고 능잔코 빠친다

옛그제 성묘차 다녀온 고향 마을이  
술잔에 거꾸로 처박혀 흔들거리고  
젊어서 혼자 된 오촌 당숙모  
자식 없으니 대명절에도 누구 하나  
찾아오는 사람 없드라는, 나 죽으면  
누가 초상칠까 눈시울 붉어진 푸념이  
목구멍에 걸려 까실거린다

식도를 타고 넘어가는 찬 막걸리가  
그냥 맹물만 같아서 몇 사발 들이붓지만  
정신은 되레 말짱해진다  
할머니 무덤 아래 아버지 무덤

그 밑에 내가 누울 자리, 오늘  
그 자리 환하게 보인다.

## 老松

얼마나 지루한 生의 단련인가  
아득한 것이 삶이어서  
몸피에 덕지덕지 세월의 더께 쌓여  
살아온 날의 애환을 말해준다

척박한 세상 한가운데서  
풍상에 단련되고 눈비맞아 세척된 몸  
진물나는 세월 수없이 스쳐갔지만  
내 청청한 마음이야 꺾일 수 없느니

때로, 산다는 것은 무섭게 건넌다는 것  
어둠이 내리면 새들 다시 찾아들고  
눈꽃 소담스럽게 피우는 날도 있느니  
쉽게 마음놓고 절망하는 것들에겐

하늘 떠받치고 서 있는 끈기와  
내 고고한 기품도 가르쳐야지  
외로워 마음 시린 밤이면

먼 길 달려온 별빛도 다독이고  
스치는 바람도 품어 안으면서.

## 겨울 潛行

소용돌이 치는 세상 한복판  
가랑잎 같은 마음 하나로 마주서면  
얼마나 아득하던가  
멀어져 가는 몸과 마음, 그 거리 좁혀보자고  
낮선 길 위에 나를 새운다  
술에 젖은 육신처럼 비척거리는 완행열차  
차창에 턱을 고이면, 지나온 날들처럼  
떠나가는 풍경이 스멀스멀 마음을 열어가고  
옛 이야기 같은 저 길 위에 무수히 찍힌 발자국,  
하나하나마다 거친 호흡 되살아나고  
철따라 불렀던 농투사니 들노래 한 소절, 오늘은  
시린 내 가슴에 불을 지피는데  
여지껏 따수운 눈길 한 번 주지 못한 난  
고개 돌린 방관자 아니었는가  
문득, 야트막한 능선으로 해는 지고  
만나야 할 것들 어둠이 가뒤편이 되버린 지금  
내 마음에 불씨는 아직 빛이 되지 못한다  
스치는 소나무 몇 그루



설한풍에도 너무 당당해 그냥 지나칠 수 없어  
아예 그들 가슴 속으로 潛行을 한다

오늘, 어머니가 위대한 이유를 알 것만 같다.



## 제 4부

### 내 언어는 詩가 되지 못하고

清明  
꽃沙汰  
망치질 소리  
지금은 사랑해야 할 때입니다  
봄불  
봄, 짙은 안개  
나무들의 사랑법  
뿌리  
내 언어는 詩가 되지 못하고  
忘憂草  
八月  
七月의 江가  
돌塔  
구절초  
交感  
사연  
광주湖에서  
사람들이 토끼장에서 산다  
氷山



## 淸明

비 개이니  
하늘 참 푸르다  
듬성듬성 떠 있는 구름  
밀고 가는 바람도  
꽃물 잔뜩 머금었다  
산야 가득 환한 햇살 남실대니  
앞새 버리고  
스스로 몸 말리던 나무도  
고집 풀고 새순 틔운다  
땅 풀려 온갖 잡풀들  
그리움처럼 돌아나니  
텃밭 갈아  
흙덩이 잘게 부숴  
푸성귀 씨앗씨  
다독여 묻어야겠다.

## 꽃沙汰

입춘 지나고  
꽃망을 한껏 부풀어 오르는데  
웬 때빠진 눈발인가

南支那海에서 달려온 꽃물결  
뇌성벽력 하듯  
단번에 몰아쳐 와

산수유 개나리 진달래 살구꽃 참벚꽃  
꽃다지 민들레 파랭이 노루귀 제비꽃  
꽃이란 꽃은 모두 피워  
꽃사태 질텐데

아무렴 오늘은,  
이 세상 모든 나무에  
눈꽃 피워  
꽃사태 낸다.

## 망치질 소리

쾅쾅 못을 박는다  
고집을 꺾는 악착 같은 저 망치질  
부드럽게 때로 격렬하게 계속된다  
무량의 못이 박히면서 적폐된  
대지가 반란을 시작한다.

진득하지 못한 흥매는 벌써  
남풍에 불 붙었다는 소식 전해오고  
계절은 또 한 계절을 그렇게 넘어주는데

여직 가슴 열어제끼지 못한 나는  
몽우리 같은 얼음덩이 삭히지 못해  
무엇 하나 보듬을 수가 없다.

들판 가득 새바람 불어오고  
생명 가진 것들 새물 그리워하는데  
餘地 한 뼉 없는 마음에  
쾅쾅쾅 망치질 소리 요란하다.

## 지금은 사랑해야 할 때입니다

메마른 대지에

時雨 내려

웅달진 돌밭 풀씨 하나까지 깨우는 지금은  
우리 사랑해야 할 때입니다.

어젯밤

달님도 별님도

잠잠하던 지상에 소곤소곤 전문 보냈다는데  
조용하던 대지에 반역이 시작되고 기어이  
불을 질러 시린 마음 달굽니다.

흉가슴 깊이 박힌 씨톨 하나

그대 향한 그리움에 몸 달아

쭈욱 고개 내밀면

겹질 깨고 나온 병아리 실눈 뜨고

처음으로 세상 보듯

오늘은 오직

새싹의 눈을 닮아



우리 모두  
새롭게 사랑할 때입니다.

## 봄 불

시들어버린 생들이 말없이  
목숨을 내준다, 누군가 불러주지 못한  
이름들이 타들어 가며 지워지고  
새까만 재로 남는다  
그들의 아름다운 꿈도  
생나무 한 토막 같은 추억도  
숨 다할 때까지 차마 말 못했던  
첫사랑도 인연도  
안개같이 자욱했던 욕망도  
봄불 속에서  
불티가 되어 흩날리고 있다

봄불이 번진다, 공동묘지에.

## 봄, 짙은 안개

파아란 하늘이 알면 안될,  
눈부신 봄빛 차마 부끄러워  
가려야 할 죄 한 벌 지었다.

춘삼월 눈 멀도록 햇살 부신 대낮에  
색시 끌어안고 뒹구는 꿈꾸다  
머리 쉰 마누라 바로 보기 머쓱해서  
뒤통수만 큼적큼적 어줍떨었던 죄

산다는 일이 때론 죄짓는 일이겠지만  
하늘에 머리 들고 숨쉬면서 아직까지  
양심 찢린 일 한 번 없었는데

지천명에 웬 광풍 같은 춘몽 한 자락,  
하늘도 알고 땅도 알아  
갓 태어난 어린 새싹 부정탈까  
안개 짙게 풀어 가려버린다.

## 나무들의 사랑법

사랑에 몸 달은 것들은 서서 기다린다  
돌아왔어 면벽하는 앞산에는  
기다림 하나로 세월 삭혀 온  
소나무 참나무 미선나무 소사나무.....  
굽은 등이 쓸쓸하다  
그리움이 사무치면  
한 해에 한 번  
꽃을 피우거나 잎새를 떨궈  
더워진 마음을 털어낼 뿐  
부동으로 침묵하는 삶은 한결같다  
꿈지머리 가시내 박꽃 같은  
해맑은 모습 하나 지우지 못해  
한때 눈 먼 바람으로 떠돌았던 나,  
이제 나무들 곁에 서서  
잠시 말을 내려놓고 그들의 삶을 배운다  
가슴을 열어 놓으면 나무는 가끔  
잔가지를 흔들며 내 어깨를 툭툭 치지만  
아직도 마음의 불을 끄지 못한 나는

그들이 던지는 언어를 읽지 못한다  
움직이지 마라!  
나무들 곁에서 움직이는 것은 그들의  
사랑을 모독하는 일이다.

## 뿌리

진정 위대한 것은 무엇인가

민준란 한 분

내 삭막한 아파트로 이사온 지

삼 년만에

별 닦은 꽃 한 송이 피웠다.

삶은 늘 예기치 못한

아름다움을 주는데

그것을 준비하는 것은

연약한 아내의

희끗희끗한 머리칼이었다.

## 내 언어는 詩가 되지 못하고

겨우내 두절됐던 소식이 새 길을 열어  
숨겨두었던 낱말들을 풀기 시작한다, 그 말들은  
민들레 흩씨처럼 가벼워 내 주위를 배회한다  
강변 몸풀기 시작한 미루나무 행간 속을  
톡톡 튀던 햇살의 투명한 언어는  
끈끈하게 달라붙었던 안개를 걷어내  
층층이풀 옆구리에 보랏빛 종을 매단다  
내 비록 병짓이 꽃 피울 꽃씨 같은  
언어 하나 묻어두지 못했으므로  
흘렀던 시간만큼 목정밭이 된 詩心,  
갈아야 할 보습 같은 새 언어는 진정 있는가  
바람은 돌머리 샅강에 맴돌던 언어들을 불러  
동구밖 수양버들 푸석푸석한 머리카락  
그 울울마다 혈관을 열어 푸른 피로 물들인다  
그것들을 바라보는 가슴 속에 막막하게  
돌아나던 내 언어는 한 줄의 시가 되지 못하는데  
어느새 봄은, 눈만 멀뚱거리며  
밤새워도 풀리지 않는 낱말이 되어  
내 마음 끝으로 찾아들고 있었다.

## 忘憂草

지천명에 非僧非俗  
하는 일마다 신통치 않아  
산을 찾는다, 반야봉  
그 품에 몸뚱이 던져 놓고  
사나흘 같이 숨쉬다 보면  
무슨 깨달음 하나 얻을까.

백골로 해탈한 고사목 그 아래  
등황색 종을 단 망우초  
흔들며, 흔들리며 더운 마음 털어내며  
운린(雲鱗)이 되고 별이 된다.

물소리 바람소리 풀벌레소리  
나직이 나를 꾸짖는다  
마음의 눈을 뜨고  
누더기 훌훌 벗고  
망우초 한 잎으로  
흔들려보라고.



## 八月

더위를 잊어 보려고 가당찮게  
面壁을 하다 보니  
당신의 넓은 품이 보입디다  
우쭈우쭈 키재기 하는 푸나무들  
산야 가득 초록으로 널어 놓고  
그 위를 쓸고 가는 바람 한 줄기  
그것도 당신의 뜻이지요  
숫정으로 타오르던 태양을  
소나기 한 차례로 다스린 것도  
伏 지난 뒤 쪽물 든 하늘에 하얀 뭉게구름,  
피라미 잡아 살려 두었던 어린 날  
검정고무신 안에서 피어오르는 것도  
모두가 당신의 조화지요  
예나 지금이나 풍더분한 마음으로  
망초꽃 피워  
당신 가실 길가에 뿌려놓고  
소슬바람에 등 떠밀려  
휘적휘적 떠나가는 당신을  
그냥 보고만 있습니다.

## 七月의 江가

푸른 침묵이 꿈틀거린다, 새벽 강가에 서면  
물안개 스물스물 피어 오르고  
보이지 않는 저쪽에서  
강의 기지개 켜는 소리가 들린다  
그 소리 따라 아랫도리가 젖도록  
한참을 헤매다 보면  
잘 익은 자두빛 태양이  
東山 노송에 걸려  
물안개의 신비를 벗기고 있다  
그때부터 강은 빗질하기 시작한다  
백발로 잠든 빼비꽃 망초꽃이 흔들거리고  
조용했던 갈대밭이 몸을 뒤척인다  
그 갈대밭에서 꿈을 키우던  
어린 물새도 깃털을 매만진다  
길이 없어도 맨몸으로 달려오는 바람  
칠월의 강가에 서면, 그 바람처럼  
성급하게 흘러가는 사람들이 보인다  
참고 기다리지 않는다

누가, 저 여울을 거슬러 오르겠는가  
강물처럼 흘러야 할 것이 기실 생이거늘.

## 돌 타

雪山 수도암 가는 길  
아름드리 잡목 우거진  
호젓한 오솔길 후미진 곳  
언제부터 이곳에  
돌탑이 있었는지  
아는 사람 없다  
말해주는 사람도 없다  
어찌다 오가는 사람  
차디찬 돌맹이 하나 주워  
담담한 소원 담아 정성스레  
쌓고 다리 쉽 하며 간다  
귀영물같이 귀귀한 세상  
인심도 흐려져 마음 꼭꼭 닫는데  
목화송이 같은 마음으로  
남을 위해  
돌 하나  
마음 하나  
탑으로 쌓을 수 있다면.

## 구절초

한시절 내내 녀두리로 풀던  
사는 이야기들이 결국은 보타버려  
흔적만 질펀한 계곡에  
구절초 한 송이 해맑다.

세상 놓아버리고 산거에 든 선승  
이슬에 세척하고 바람에 말리면  
그 마음이 저러할까.

저 산, 접지 못한 푸른 꿈들로 하여  
제 마음 숨기지 못하고 저렇게 낮 붉히는데

生은 이루는 게 아니라 견디는 것이라는  
침묵하며 견디다보면 눈물 같은 꽃도  
한 송이쯤 피워 올릴 수도 있다는 것을  
서릿바람 속에서 말없이 보여주는데.

## 交感

동리산(桐裏山) 중허리  
태안사 범종 소리에  
마음 트인 민춘란

손바닥만한 별뉘에  
꽃대궁 밀어내려고  
뿌리 한 번 꿈틀한다

순간  
겨울잠 자던 청설모  
실눈 뜨고 기지개 켜다.

## 사연

맥박 빨라진  
歲暮 금남로  
카톨릭센터 앞  
맑은 피 먹고 자란 은행나무  
빈 가지  
아직도 부여잡고 있는  
앞사귀 하나  
찬비에 젖으며 떨고 있다.

지상으로 못 가는  
사연 하나 있었던가.

## 광주湖에서

생의 표면은 명경같아서  
조그만 부딪침에도 파문이 인다  
깊이를 알 수 없는 당신의 마음  
조용해질수록 더욱 또렷이  
나타나는 상처의 무늬,  
많은 날들이 지나  
이제 지워질 때도 되었는데  
아득한 날 전설 같은  
격랑에 몸 뒤틀었던 그날의  
함성이 아직도 들려와  
아아, 無等의 그림자  
온몸으로 품어안은  
당신의 그 지독한 사랑.



## 사람들이 토끼장에서 산다

집들이 하나 둘 떠난 도시에  
토끼집이 죽순처럼 키를 세운다, 자고 나면  
몇백 년 자란 나무보다 더 높이 올라가고  
천정에서는 하수 흐르는 소리 들리고  
철망 쳐진 창문에는 햇살 한 올 들지 않는다  
어쩌다 하늘이라도 한 번 볼려면  
고개를 직각으로 꺾어야 했고, 그나마  
눈에 들어오는 손바닥만한 하늘엔  
시커먼 매연이 너울너울 춤추고 있다  
견디지 못한 나무들이 신음을 토하자  
새들도 정처없이 떠나가고  
숲에 집 짓고 살던 별도 싱싱한 바람도  
더는 만나 볼 수가 없다  
계절이 바뀌어도 꽃들은 피지 않아  
사람들은 꽃을 보기 위해 자가용을 타고  
백 리 길을 달려가곤 했다, 이제  
사람들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육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 氷山

우리들 마음 속 단혀진 창가에서  
꽃밭 딛고 올려다보는 雪山이 있다  
산 전체가 눈으로 덮여 있어  
풀이나 나무 그 속에 사는 모든  
짐승들까지도 온통 하얀 것 같다

눈을 감으면 은빛 깨끗함이  
새벽강 잔물결로 밀려와  
그 산의 신비로움은 더했다  
모두들 그 산에 오르고 싶었지만  
정상은 너무 높아 아득하기만 했다

눈을 뜨면 삶은,  
끈끈이주걱 몇 포기씩 마음속에 키우며  
진구렁 속을 벗어나지 못하지만  
마음 한편은  
깨끗한 길 만들며 가고 싶어 한다

우리들 마음속엔  
때묻지 않는 산 하나씩 가꾸며 산다.

## 그리움이 만드는 길

신 덕 룡/문학평론가·광주대 교수

윤석주의 시를 처음 본 것은 96년도 가을이다. 당시 계간지 《시와사람》에서는 제1회 신인상을 내걸고 작품을 모집하고 있었다. 예심을 맡았던 나는 처음으로 그의 「목사동 가는 길」을 비롯한 작품들을 볼 수 있었다. 그 당시 나는 그가 시를 오랫동안 써 왔을 것이며 최소한 젊은 사람은 아닐 것이란 생각을 했었다. 만만하지 않은 시적 이력과 시 속에 담긴 삶의 내용이 예사롭지 않아서였다. 다행히 그의 작품이 본심에서 많은 점수를 얻어 시인으로 데뷔했고, 이런 과정에서 그가 50에 가까운 장년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왜 쓸데없이 그의 시를 풀어가야 할 자리에 장년의 나이를 말하느냐고 그는 반문할지 모른다. 시를 쓰는 데 나이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하면서……. 솔직히 고백하자면 나 역시 편견에 빠져있는 일개 문학도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하고 싶어서다.

50대는 시보다 인생을 관조하면서 삶의 지혜를 나누는 나이에 속한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이다. 孔子도 남아의 나이 오십이면 知天命의 경지라고 하지 않았는가? 天命이란 다름아닌 하늘이 만물에 준 것, 사람으로 따지자면 본연의 성정일 것이다. 그렇다면, 이것을 알 정도의 세월을 살았다는 것이요 연륜을 통해 세상의 이치와 만물의 이법을 어렵곳이나마 깨달아 갈 시기가 아닌가? 이런 점에서 시가 젊은이의 열정에서 비롯하고 산문이 인생의 지혜를 풀어가는데 더 적합하다는 것이 우리의 통념이다. 일찌감치 시단에 나와 젊은 시절 명성을 떨친 많은 시인들도 세월의 흐름과 함께 열정보다는 삶을 투시하는 지혜를 우리 앞에 펼쳐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시인 윤석주는 우리의 이런 통념을 일거에 걷어 치운다. 그의 첫시집인 『잠든 숲에 사랑을 묻다』를 통독하면서 나는 요즘의 젊은 시인들에게서도 찾을 수 없는 열정에 감동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의 시를 읽으면서 ‘신인치고는 너무 나이가 많지 않은가’라고 생각했던 나의 단견과 졸렬한 안목을 탓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나는 그를 제대로 보지 못했던 셈이다. 그렇다면, 그의 시에서 무엇이 나를 사로잡았는가? 한마디로 그의 시는 열정과 고뇌로 갈등하는 내면의 솔직함 그리고 이를 풀어내는 방식의 자유로움으로 살아 움직이고 있었다.

다음과 같은 시를 보자.

그대 보고품에  
 봄밤 하얗게 밝히다 보면  
 눈 먼 그리움이 쇠어서

산막 봉창에 허깨비도 얼비친다  
 달빛 기울어지면  
 기다리다 지친 별들이  
 마당 가득 내려와서  
 지친 마음에 활활 불을 놓는다.  
 그리워, 삭을 대로 삭은 가슴  
 망웃자리처럼 푹푹 썩다 보면  
 알리라  
 얼마나 가슴 썩어야  
 그리움의 흰 절정과도 같은  
 사랑이 되는가를 ……

—「그리움이 삭아서」 전문

그리움과 사랑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차 있는 시다. 여기서 주목하는 바는 그리움의 깊이다. 그리움이란 무엇인가. 우리의 몸  
 에 나 있는 상처의 흔적과도 같은 것이다. 그 상처가 아물어 새  
 살이 돋고, 우리의 기억 속에 말끔히 지워졌다고 생각했건만 문  
 득문득 우리 눈에 얼비치는 것은 상처의 흔적이리라. 몸과 마음  
 에 배어 있는 이런 흔적들은 세월의 더께가 쌓이면서 불현듯 아  
 려한 추억으로 떠오르고, 못내 아쉬고 소중한 기억이 된다. 현재의  
 삶이 외롭고 쓸쓸할 때 그 기억들은 절실한 그리움으로 떠오  
 른다. 훼손되기 이전의 행복을 떠올리면서 스스로 위안받는 것  
 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이 시에서 못내 아쉬운 그리움의 대상은  
 무엇인가? 한마디로 사랑했던 ‘그대’다. 굳이 ‘사랑했던’이라는  
 과거형을 쓰는 것은 ‘그대’가 그리움 속에 다가오기 때문이다.

그리움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시인은 “눈 먼 그리움이

쇠어서/산막 봉창에 허깨비도 얼비친다”라고 말한다. 그리움이 깊어지면서 없는 ‘그대’ 모습을 환영으로 떠올리고 있다. 그 간절함이 그리움이라는 추상적·관념적 대상을 구체적이고 감각적인 실체로 시각화하는 것이다. 이런 그리움과 안타까움은 ‘그대’가 결코 내 앞에 나타날 수 없고 또 찾아가 만날 수 없다는 사실과 결부되면서 더욱 애절한 모습을 띤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기에 시인의 가슴은 “망웃자리처럼 푹푹 썩”어 버린다. 이런 과정을 거쳐, 그리움이 삭아 ‘흰 절정과도 같은 사랑’이 된다는 진실 앞에 겸허해지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으랴?

애절함과 안타까움을 내면화하면서 절제된 언어로 우리 앞에 물결처럼 다가오게 하는 힘의 실체를 찾아가 보자. ‘그대’를 추적하는 길은 의외로 가까이에 있다. 아주 가까운 곳에서 느닷없이 ‘그대’는 시인의 열정에 불을 지피고 있었던 것이다. ‘그대’는 젊은 시절 사랑했던 여인이고, 가난 때문에 사랑을 이룰 수 없었고(「봄날에 쓰는 편지」, 「살구꽃은 지는데」), 지금도 “뜨건 피 돌아/온몸 후줄근히”(「大暑」) 젖도록 사랑하는 여인이다. 잊고 살아왔지만, 불현듯 “먹물웃 입고 출현한 여인”(「落花에 마음 실어」)으로 다가온 것이다. 시인은 그때의 심정을 다음과 같이 읊고 있다.

아닌 날 소나기 같은 그녀의 출현에  
 그냥 막막해 잎새 떨군 나무로 서서  
 말없이 바라보기만 했던 것이 지난 가을이었던가  
 —「아무리 작은 흔적도 각인된다」 일부

수십년 만의 우연한 만남에 시인은 얼이 빠진 채 그녀를 바라보고 있을 뿐이다. 말 한마디 할 수 없는 막막함에 “잎새 떨군 나무” 처럼 서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막막함이 가셔진 후, 그는 옛사랑의 열정을 떠올리면서 그 흔적을 찾아 떠돌고 있다. ‘그대’의 흔적을 찾아 ‘남해 금산 보리암’으로 찾아가기도 하고, 그리움에 온 밤을 밝히면서 가슴앓이를 시작한다. 그러나 그 사랑은 이미 지나가버린 것이고, 이승에서 다시 맺어질 것이 아님을 안 순간 시인은 “나는 무슨 헛수고에 마음을 기댄 철부지 욕심”에 매달려 있는가 하고 묻기도 한다. 그의 이런 갈등은 “그림자 된 그대를 떨쳐버리고/진정 혼자이고 싶”(「땅끝에서」)어 떠돌게 한다. 진정 ‘사랑’의 실체가 무엇이나는 내면으로의 여행을 시도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의 여정은 채석강에 가서야 사랑의 실체를 대하면서 끝난다.

눈 내리는 날에  
 낙조는 어떻게 몸 사르다  
 겨울바다로 뛰어드는지 바다는  
 그 사랑을 또 어떻게 품어 안는지  
 좁쌀눈 흩뿌리는 채석강에 섰다

毒酒를 마신 듯 빨발은  
 흑한에도 가슴을 드러내놓고 잠시 쉬는데  
 바다는 너무도 장엄한 사랑의 임종 앞에  
 부대끼며 부서지며 안간힘을 쓰면서  
 눈발 속에서도 뜨거워지고 있었다



난 차라리 눈을 감아버렸다, 내가  
서 있던 바위가 바닷속으로 빨려들고  
내 아랫도리가 바닷물에 잠기고 이윽고  
가슴이, 머리까지 물에 잠기고서야 내가  
가슴더운 허수아비인 것을 알았다

그래, 더운 마음 털어버리고 다시 서니  
만경들 빈 벌판에 아직 잠들지 못한 갈꽃들  
울음소리 들리고 해안절벽 가까스로 부여잡은  
뿌리가 드러난 해송 두 그루 가지를 흔들며  
서로 쌓인 눈 털어주는 것도 보이느니.

—「그 겨울, 채석장에서」 전문

시인은 ‘눈내리는 날’ 멀리 수평선에 떨어지는 ‘낙조’를 바라본다. 언뜻 눈내리는 날 무슨 낙조냐고 반문할지 모른다. 잠시 생각을 돌려보자. 오죽했으면, 눈내리는 날 바닷가에 가서 저녁노을을 보자고 마음먹었을까. 시인은 저녁노을이 보여주는 장관을 기대하지도 않았으리라. 다만, 사랑의 열정을 바닷바람에 식히고 싶었으리라. 그러나 자연은 그 앞에 예기치않은 정경을 펼쳐보이고 있다. 시인은 낙조가 마지막으로 놓는 “사랑의 임종”을 바다가 “부대끼며 부서지며 안간힘을 쓰면서/눈발 속에서도 뜨거워지고 있었다”고, 그 감동을 우리 눈앞에 펼쳐 놓는다. 그는 자연이 만들어내는 장엄하고도 황홀한 정경 속에서 진정한 사랑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다. 그는 무엇을 보고 있었는가? 자신의 모든 것, 자신조차도 버리면서 낙조와 바다가 하나로 되는 모습이다. 비록 그것이 한 순간의 완성이라고 하지만, 자신의

전부를 던져 하나가 되는 아름다움 앞에 시인은 그저 “가슴더운 허수아비”에 지나지 않았음을 깨닫는다. 물론 그 자신도 “머리까지 물에 잠기고서야” 그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그는 지금까지 허상을 쫓아 다녔던 것이다. 내 전부를 소진시킬 수 있어야 할 대상이 지나가버린 하나의 허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낙조’와 ‘바다’의 사랑 앞에서 깨달을 수 있었다. 그는 비로소 집착에서 벗어난다. 이제 그의 눈과 귀엔 “만경들 빈 벌판에 아직 잠들지 못한 갈꽃들”의 울음소리가 들리고, 해안 절벽을 가까스로 부여잡고 서 있는 해송 두 그루가 “가지를 흔들어/서로 쌓인 눈을 떨어주는 것도” 볼 수 있게 된 것이다.

갈꽃들의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는 것이나 해송 두 그루가 말없이 “서로 쌓인 눈을 떨어주는” 행위를 볼 수 있었다는 시인의 전언은 예사롭지 않다. 사랑의 모습은 다른 것이 아니다. 열병 속에 가슴앓이가 아니라 말없이 주고받는 것이란 의미에서다. 사랑은 소유나 집착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진정한 사랑은 자기를 초월하면서 얻어지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러한 깨달음은 그의 열정이 그만큼 순수했기에 가능한 것이었음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이제 그의 사랑은 ‘그대’라는 구체적 대상을 향한 몰입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여기에서 벗어나 자신의 삶을 이루고 있는 ‘모든 그대’에게로 펼쳐진다. 어머니, 할머니, 누님에서부터 “씻나락 담근 오지그릇에 살구꽃잎으로 뜬”(「사람살이」) 자신의 삶, 말바우 시장에서 오들오들 떠는 노파(「生の肖像」), 길일을 택해 동네 샘을 청소하는 노인(「吉日」), 불쌍하게 죽어간 민초들(「되떼새」)에 이르기까지 그의 사랑은 넓어지고 깊어진다.

사랑이 깊어지고 넓어짐에 따라 그의 시는 인생에 대한 통찰 쪽으로 방향을 틀며 나아간다. 삶에 대한 사랑과 그 이치를 배워가는 모습을 보자.

- ① 때로, 산다는 것은 무섭게 견딘다는 것  
어둠이 내리면 새들 다시 찾아들고  
눈꽃 소담스럽게 피우는 날도 있느니  
쉽게 마음 놓고 절망하는 것들에겐

하늘 떠받치고 서 있는 끈기와  
내 고고한 기품도 가르쳐야지  
외로워 마음 시린 밤이면  
먼 길 달려온 별빛도 다독이고  
스치는 바람도 품어 안으면서.

—「老松」 3~4연

- ② 더위를 잊어 보려고 가당찮게  
面壁을 하다보니  
당신의 넓은 품이 보입디다  
우쭈우쭈 키재기 하는 푸나무들  
산야 가득 초록으로 널어 놓고  
그 위를 쓸고 가는 바람 한줄기  
그것도 당신의 뜻이지요

—「八月」 앞부분

①의 시에서 시인은 담담한 마음으로 늙은 소나무 한 그루를 바라보고 있다. 나무는 오랜 세월 “몸피에 덕지덕지 세월의 더

서 청설모가 기지개를 켜는 것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겠는가. 그러나 이 시의 세계를 이루고 있는 모든 사물은 봄이라는 계절과 이를 주관하는 우주의 이법 속에 함께 있다는 것으로도 존재 의미를 지니는 것들이다. 굳이 불교적 이해에 기대지 않더라도 이 시에서 범종소리는 우주의 소리요, 우주의 소리는 모든 존재들에게 고루 미치는 것이요, 우주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움직임일 터이기 때문이다. 이렇듯 자연의 이법이란 아무 관계가 없는 것같이 보이는 모든 존재들을 이어준다. 그 이어짐을 보는 것이 시인의 눈이요, 관계지음은 사랑의 힘인 셈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은 이 시집의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윤석주 시의 바탕을 이루는 사랑의 열정과 그 열정이 방향을 틀며 나아가는 행로를 더듬는 데는 크게 부족함이 없다. 중요한 것은 사랑의 열정이 어느 구체적인 대상에서 머물지 않고, 자기극복을 통해 그 대상을 넓혀간다는 사실이다. 고무적인 일이고 또 시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리라. 그러나 그의 시는 보다 넓어져야 하리라. 자신에게 연연해서 눈을 밖으로 돌리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그 범위가 한정되어 있다는 의미에서다. 이와같은 지적은 그의 시에서 신선하고 날카로운 비유나 상징이 살아 움직이지 않는다면, 회고적 서정에 머물러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오히려 진실함을 바탕으로 보다 냉정한 자세와 통찰력을 지니고 우리 삶의 현재를 보아야 한다는 의미에서다. 앞서 知天命이란 말을 했거니와, 그것은 삶을 읽어내려는 의지와 끊임없이 자기내면을 응시하고 객관화시켜 삶 그 자체를 투시하는 지혜를 갖춘 시를 써야한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였다. 삶의 본질에 다가서려는 다양한 모색과 접근이 '하늘에서 만물

에 주어진 이치'를 찾아 나서는 행위와 보다 구체적이면서도 진실하게 만나야 한다는 것이기도 하다. 그 가능성은 열려있다. 내면의 진실함에서 우러나오는 힘이 이 시집을 감싸고 있다는 사실 하나에도 신뢰를 보낼 수 있기 때문이다.



## 後記

삶에는 흔적이 남는다. 크고 작은 그것들을 보듬고 아우르며 살아가기 마련이다. 여기 묶은 시들은 그 부산물이다.

사는데 무슨 말이 그리 많이 필요했냐고 묻는다면 나는 할 말이 없다. 내가 생각해도 너무 건방진 수작같아 몸둘 바를 모르겠다.

근엄해진 계절 앞에 고개를 숙인다.

1998년 늦가을

空聚軒에서

윤석주





## 잠든 숲에 사랑을 묻다

1998년 12월 1일 인쇄

1998년 12월 7일 발행

지은이 | 윤석주

펴낸곳 | **곡성문화원**

인쇄처 | **도서출판 시와사람**

주 소 | 광주광역시 동구 금동 192-2번지

전 화 | (062)224-5319·234-5319

팩 스 | (062)227-5319

\* 이 책은 전라남도 문예진흥기금을 지원받아  
제작되었습니다.

